

민주 전대 '이해찬 거취' 관심집중

후보등록 D-1... 거론 인사 대부분 입장 정리 박영선 불출마... 최재성 오늘 공식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후보등록을 이틀 앞둔 18일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 거론돼온 인사들의 거취가 대부분 정리되고 있다.

4선의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8·25 전 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또 최재성 의원은 19일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전해철 의원과 이른바 '진문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눠왔지만 전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 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4선의 박영선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에 나가

지 않기로 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 입문 후 지금까지 저는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 이 일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께 출사표를 던지려 했으나, 원내지도부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불출마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로 주목받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도 후보등록 전 막판 변수로 관심을 끌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7선의 이 의원이

무계급 있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정 관계를 주도해달라는 의견과 2선에서 젊은 후배들을 지원하고 격려해달라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또 김 장관의 불출마 쪽으로 바뀌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보등록 시점이 임박한 만큼 금명간 전당대회 대진표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 설훈·이인영 의원은 오는 19일 세 번째로 만나 단일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전후 사상상 오는 26일 예비경선 전까지는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출판기념회를 통해 차기 리더로서의 비전을 밝힌 김두관 의원은 19일 오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석현·이종걸 의원도 막판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8·25 전국대의원대회에

서 이뤄지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에 반영될 대의원과 권리당원 ARS 투표 비율을 각각 45%, 40%로 최종 의결했다. 이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 권리당원 ARS 투표는 다음달 20~22일, 일반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는 다음달 23~24일 진행되고,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진행된다. 재외국민 대의원의 경우 이메일 투표가 가능한데 다음달 20~22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오는 26일에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투표는 당 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2표제로 당 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할 때에 표로 인정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미국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인천공항 귀민실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4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한미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수·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정동영, 평화당 전대 공약 발표... 이윤석 전의원 출마 선언

민주평화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18일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수 등 당 대표 후보자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보란 듯이 당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 의원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

거제도 개혁 연내 완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지역 평등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분권형 개헌안 마련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진보적 민생주의 노선으로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며 ▲민생개혁특별위원회·갑질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당세 확장의 방안으로 ▲청년 지도자 300명 양성 ▲청년·여성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출신 선발제도 도입 ▲정당보조금 5% 청년 정치활동에 지원 ▲각 대학별 민주평화당 대학생위원회 조직 ▲당원 20만 명 연내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날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등록한 이윤석 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당의

존재감을 높이고 반드시 호남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1500만 출향인 호남 네트워크를 복원해서 전국 정당 초석을 다지겠다"며 "노장정이 조화를 이루는 정당, 원외와 원내가 단합한 정당, 호남과 비호남 모두 통합되는 강한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뽑는 평화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5일 치러진다. 최경환·정동영·유성열 의원과 민영삼 최고위원, 허영 인천시당위원장, 이윤석 전 의원(등록순) 등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의 첫 합동토론회는 20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전대 1인2표·컷오프제 도입

25일 전대를 마무리

바른미래당은 18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해 뽑는 9·2 전당대회에서 '1인 2표제'와 '컷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해찬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3차례회의를 한 결과, 1인2표제와 컷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당 대표(최다득표자가 대표로 선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는 '통합선거'이지만, 당대표급 후보와 최고위원급 후보에 한표씩 투표하고 싶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있어 1인2표제(1인 2연기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 다만, 컷오프 기준은 후보 등록이 모두 끝난 뒤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 등 총 4명을 통합해 뽑는 이번 전대 선출 인원의 1.5배수인 6명을 컷오프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실제 입후보 규모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준위는 책임당원 가중치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가중치 비율 등도 이날 확정, 책임당원·일반당원·국민여론조사 비중을 50:25:25로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준위는 오는 25일 회의에서 전당대회 규칙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행세칙을 마련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서삼석 “흑산공항 반드시 건설해야”

내일 환경부 심의 앞 기자회견

오는 20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공항 건설 심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신안군 흑산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 평등권의 보장을 위해 흑산공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13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 첫 기자회견에서 "흑산도는 주민 4500명이 살고 연간 30여만명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이지만 연간 120여일 정도 기상 악화로 인한 여객선 운항 통제 등으로 주민의 발이 묶이고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속수무책"이라며 "그런데도 단순히 국립공원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항 건설을 막아 섬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과 생존권이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흑산도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울릉도는 주민의 반대로 국립공원 지정도 못하고 흑산공항과 동시에 추진했던 울릉도공항 건설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흑산 주민의 국민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생활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공항 건설은 지난 2012년 울릉도 공항과 함께 섬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개항을 목표로 국가 항공정책에 반영됐다. 하지만,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가 철새 이동의 중간 기착지라는 이유로 흑산공항 건설 계획을 보류하고 보완책을 요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골프접대 논란’ 김병준 “초대 받았을 뿐”

국회서 기자회견... “김영란법 위반 여부 결론 안 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합승회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의 초청을 받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접대라고 하긴 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날 언론에 보도된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아시겠지만 공식(골프) 시험을 하기 전에 프로와 대화가 있고 여기에 사회 각계 여럿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다"며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냥 상

식선에서 골프를 한 번 하고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었나 안 넘었는 알 수가 없다"며 "기다려 달라.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 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대 교수 신분이던 지난해 8월 100여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상가건물 매매 [신축 상가주택]

- 월곡시장 2분(일신아파트 · 부영아파트 부근)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분(1층,상가)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4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